

사회

교육부 방침 따르던지... 진보교육 소신 지키던지...

이랬다 저랬다 광주교육 대혼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 안한다 → 고3만 한다 → 다시 안한다
자사고 과외교사 특채 → 원칙어긋난다 → 몇명은 특채해준다
자율학습 금지 → 방학중 도서관선 허용 → 사실상 학생자율로

광주시교육청이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을 시행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르고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비교육적·비인권적'이라며 기재를 보류했었으나 고3에 한해서는 다가온 임시 전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에는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중에 밤 10시까지 교실에서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학교폭력 관련 고3에 대한 학생부 기재(학폭기재)는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는 학폭기재 전면 거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지정철회를 요청한 보문고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을 벗어났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미 기록이 끝난 수시전형에 대해서는 학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시에서는 바뀌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전임 교육감의 약속대로 보문고 교사 16명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것은 '총(總)정원 과원에 대한 특채를 허용하고 있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라 학급감축 등에 따른 교사 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의에 대해 "원래는 학폭기재 전면 거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3학년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 보고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나, 보문고 외에도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과외교사 문제가 고질적이어서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에는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중에 밤 10시까지 교실에서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을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서관과 일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도 실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방침을 반복하고, 교과부와 정책을 놓고 잇따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학교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3학년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의에 대해 "원래는 학폭기재 전면 거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3학년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의에 대해 "원래는 학폭기재 전면 거부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시작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이미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한 3학년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토종 어류 치어 방류

대한민국특수어류유전자회 광주시지부 회원들이 4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방림동 광주천에서 토종 어류 멸종을 막기 위해 잉어와 황금잉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홍홍한 나주'

'고교생이 등산 주부 성폭행' 괴담
수사 종결 불구 확산... 주민 불안

나주 여자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괴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등생 사건 이후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검거됐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내가 투신하는 것을 봤다" 등의 내용이 더해지고 있다.

4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께 나주시 한 등산로에서 고교생 4명이 등산하던 4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자, 피해 여성이 충격으로 병원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나주를 특정하는 제목 등의 기사가 잇따르면서 지역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급기야는 나주시청에서 지난 3일 언론사에 "지역명 언급을 자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순천 검찰 수사관이 4900만원 뇌물 받아

검찰 수사관이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과장이 일고 있다. 이 사채업자는 과외교사를 성폭행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와 함께 불법사채업자를 현역으로 구속된 상태다.

등생 사건 이후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검거됐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내가 투신하는 것을 봤다" 등의 내용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층보도가 필요하지만 지역 이름이 많이 기사에 등장하면서 지역민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원기자 chjung@

고종석 사건에... 아동 지문등록 폭주

실종·범죄 피해방지, 광주·전남 2만1000건 넘어

광주·전남에서 어린이 실종 또는 범죄피해에 대비한 사전등록 건수가 2만1000건을 넘어섰다.

등록 건수는 광주 1만7140건, 전남 4067건이다.

4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2일부터 3일까지 사전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말 현재 2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동의)으

로 미리 어린이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제도다.

접수됐다.

광주와 전남의 큰 차이는 인천을 제외한 6개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현장 방문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종석 검찰 송치

나주경찰은 4일 "자고 있던 7세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피의자 고종석(23)을 5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종석은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인 접견실에서 이뤄진 보강수사 과정에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죄송하다"며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치단체, 교육청 협조를 받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도 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비상령속 음주사고 '얼빠진 경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범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물의.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동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전모(44)경위가 전날 밤 광주시 서구 유덕동 제2순환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

○전 경위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오후 7시에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three buckets of 'ENG 방수' (ENG Waterproofing) and lists benefits like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No technical skills needed, anyone can do it themselv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이앤지 방수' (I&N Waterproofing) at 062-367-7755.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ou-Square Sauna). It promotes a '즉석 프리미엄뷔페' (Instant Premium Buffet) with 150+ menu items. It also advertises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24-hour You-Square Sauna)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at 062)671-1199.